

■ 주요 기사

○ 철도지하철 노조 동반 파업 (8건)

조선	오늘부터 지하철·철도 노조 파업... 낮 시간대 지하철 운행 20% 줄어
매경	지하철 노조도 '힘자랑'...서울·부산 27일 발 묶여 "성과연봉제 맹목적 반대는 명분없다"
한경	[멈춰선 한국호, 이대로 주저앉나] 27일 철도·지하철노조 22년 만에 동반 파업 돌입
한겨레	철도·서울 지하철 22년만에 동반 파업 철도·지하철 27일 파업...운행스케줄 확인하세요
경향	철도·지하철, 27일부터 공동 파업...일부 운행 축소 노동계 "총파업에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정부, 철도 파업 불법 규정 "즉각 철회" 압박

○ 정부 일자리 사업 실효성 문제 제기 (6건)

동아	KDI "고용장려금,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매경	196개 일자리사업에 15조 헛돈..."차라리 n분의 1로 나눠줘라" 좀비기업 양산하는 일자리 정책 대수술해야
한경	KDI "정부 일자리 정책 구조조정 필요"
한겨레	"정부 일자리사업 실효성 의문 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해야"
경향	15조 쓴 일자리 사업, 제자리 못찾고 '헛심'

○ 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4건)

중앙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아모레퍼시픽 11개 제품 회수 조치
한경	메디안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한겨레	가습기살균제 원료 독성물질 CMIT/MIT 치약에도 들어갔다
경향	아모레 치약에도 '가습기 살균제 물질'

○ 현대차 파업 관련 (4건)

조선	현대차 파업... 울산·전주·아산 모든 라인 스톱
중앙	현대차 12년 만의 전면파업, 인도에 밀린 한국 자동차
동아	현대차 전면파업... 올 손실 2조5000억
매경	현대차 협력사들 "귀족노조 밥그릇 챙기기에 우린 굶어죽을판"

■ 주요 칼럼 · 사실

○ 현대차 노조 파업 관련 (1건)

조선	[사설] 귀족 노조는 돈 더 달라 파업, 현대차 공장은 해외로
----	--

○ 임금불평등 해소 위한 예산안 편성 (1건)

경향	[시론]저출산, 가계부채 문제와 내년 예산안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현대차 파업... 울산·전주·아산 모든 라인 스톱 A3면	
		내용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12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11만대,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회사는 추산	
		제목	광주시의 '반값 임금' 러브콜에도... 공장 신설 주저 A3면	
		내용	'반값 임금'을 내세워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려던 광주시의 실험이 답보 상태. 업체들은 강성 노조, 융통성 없는 법률 때문에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 보고 해외공장 건설에 주력	
		제목	오늘부터 지하철·철도 노조 파업... 낮 시간대 지하철 운행 20% 줄어 A16면	
		내용	27일부터 철도 노조와 각 지하철 노조 등이 연대 파업에 들어갈 예정.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서울시·부산시는 대체 인력 투입을 통해 KTX와 출퇴근 시간 지하철 운영을 평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	
중앙	노동	제목	[사설] 귀족 노조는 돈 더 달라 파업, 현대차 공장은 해외로 A35면	
		내용	현대차가 국내에서 80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동안 해외에서는 두 배도 넘는 1만7000명의 일자리가 더 생김. 노조만 아니었으면 그중 상당수는 국내 일자리가 됐을 것	
		환경	제목	현대차 12년 만의 전면파업, 인도에 밀린 한국 자동차 A6면
			내용	노동조합의 가을 '추투(秋鬪)'가 본격화. 현대차 노조는 26일 전면파업을 실행. 2004년 이후 12년 만의 전면파업
			제목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아모레퍼시픽 11개 제품 회수 조치 A6면
			내용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 중인 치약에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와 MIT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 회수
제목	당장 폐차할 경유차 고쳐오라는 환경부 A12면			
내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부터 폐차하는 게 상식 아니냐. 폐차 차주에게 배출 기준을 맞춰서 오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매체명	주 제	내 용		
동아	노동	제목	현대차 전면파업... 올 손실 2조5000억 A1면	
		내용	26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2년 만에 전면파업을 벌이면서 하루 손실액이 1600억 원, 누적 손실액이 역대 최대인 2조5000억 원에 육박	
	고용 복지	제목	대기업 정규직 월급 417만원...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3배 B1면	
		내용	유노조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무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3배나 많은 월급을 받고 6배나 더 오래 근속하는 것으로 조사.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난 것	
		제목	KDI "고용장려금,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B4면	
		내용	KDI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고용장려금 제도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유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매경	노동	제목	현대차 협력사들 "귀족노조 밥그릇 챙기기에 우리 굶어죽을판" A14면	
		내용	현대차 울산공장을 비롯해 전주·아산공장의 생산라인은 모두 가동이 중단.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며 일제히 성토	
		제목	지하철 노조도 '힘자랑'...서울·부산 27일 발 묶여 A14면	
		내용	코레일이 주된 구성원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노조, 5~8호선을 맡은 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부산지하철노조 등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가 27일 연대 파업에 돌입	
			제목	"성과연봉제 맹목적 반대는 명분없다" A14면
			내용	정부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월말까지 이어지면 13억달러(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수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노사에 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호소
	고용 복지	제목	196개 일자리사업에 15조 헛돈... "차라리 n분의 1로 나눠줘라" A4면	
		내용	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고용장려금 예산 중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비중은 9.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형식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	
제목		좀비기업 양산하는 일자리 정책 대수술해야 A4면		
내용		윤희숙(KD)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정부의 일자리, 중소기업 등 관련 정책이 이른바 죽었어도 죽지 않은 좀비기업들과 기득권층의 이해를 보호해주는 기형적 방향으로 흐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경	노동	제목	[멈춰선 한국호, 이대로 주저앉나] 27일 철도·지하철노조 22년 만에 동반파업 돌입 5면
		내용	전국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이 27일 22년 만에 동반 파업을 벌인다. 26일에는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면 파업했다.
	고용 복지	제목	'부도 위기' 갑을오토텍, 피가 마른다 11면
		내용	노동조합의 공장 점거 파업이 26일로 81일째를 맞은 갑을오토텍이 생산 중단에 따른 자금 상황 악화로 부도 위기.
	환경	제목	KDI "정부 일자리 정책 구조조정 필요" 10면
		내용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일자리 사업은 정책 목표가 분명치 않은 보조금 사업으로 한국 경제의 신진대사를 지연시키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노동	제목	철도·서울 지하철 22년만에 동반 파업 8면
		내용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23일 총파업에 이어 철도·지하철노조가 포함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7일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노동계 반발
한겨레	노동	제목	철도·지하철 27일 파업...운행스케줄 확인하세요 8면
		내용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와 서울시 지하철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과 서울시측 대책 내놓음
	고용 복지	제목	"정부 일자리사업 실효성 의문 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해야" 18면
		내용	2016년 기준 25개 부처 196개 사업에 15조8000억여원이 투입되고 있는 정부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환경	제목	가습기살균제 원료 독성물질 CMIT/MIT 치약에도 들어갔다 6면	
	내용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유독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치약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매체명	주 제	내 용	
경향	노동	제목	철도·지하철, 27일부터 공동 파업…일부 운행 축소 1면
		내용	27일부터 철도·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동자 6만여명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지하철 공동 파업은 22년 만이다.
		제목	노동계 “총파업에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정부, 철도 파업 불법 규정 “즉각 철회” 압박 10면
		내용	철도·지하철 등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고용 복지	제목	15조 쓴 일자리 사업, 제자리 못찾고 ‘헛심’ 14면
		내용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목표 대상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경제의 신진대사를 지연시키는 등 문제투성이어서 재편이 시급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제목	[시론]저출산, 가계부채 문제와 내년 예산안 30면
		내용	장상환 경상대 교수, 저출산과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하는 소득불평등의 최대 요소는 임금 불평등. 최저임금 위반, 노조탄압 등 감시하는 근로감독관 태부족. 총선공약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 위해 내년 예산 편성하는 야당들의 역할을 기대
	환경	제목	아모레 치약에도 ‘가습기 살균제 물질’ 8면
		내용	‘메디안’과 ‘송염’ 등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 11종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긴급 회수에 나섰다.
		제목	대기업 화력발전 신설 첫 제동 12면
		내용	정부가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논란을 빚어온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끝>